

충청북도사회복지협, 정기이사회·총회 개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사업실적·결산보고 받아
사업 계획 등 승인... 노광기·최병윤 등의 원에 감사패

사회복지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장기, 이하 도협의회)는 2월 28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임원, 단체인 및 개인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인과 수탁기관인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에 이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이 승인됐다.

김장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최적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모델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노광기 충북도의회와 충청북도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의 치우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최병윤 의원이 감사패를 받았다.



2014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2월 28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김장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3월 한 달... 복지급여 탈락자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민관협력 추진
시스템 강화로 사각지대 발굴
일선 현장 복지인력 지속 확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조사기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 민관협력망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게 되며, 보험료제 납자, 단전 단수가구, 폭염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자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 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급여결정의 정확성 제고도, 공적 지원의 민간후원 연계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이의신청 등 재심절차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전국 시 군 구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의 경우에도, 찾아가는 서비스 및 취약계층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일선 현장의 부족한 복지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좋은이웃들 사업 확대 등 지역단위의 민관협력망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좋은이웃들 사업을 지난해 전국 40개 시 군 구에 서울 60개 시 군 구로 확대 실시

한다.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 지원 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은 13년 전국 40개 시 군 구에 서울 30,900명을 봉사대원으로 위촉하여, 소외계층 12,256가구를 발굴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통리반장, 집배원, 부녀회원 등과 함께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협력 사업업을 34년 30개 시 군 구에 실시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군구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 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보건소 이용 시 복지서비스 신청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보건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신청 불편이나 제도 홍보 부족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의 복지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통 반 장, 독거노인콜로미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자살예방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지킴이는 사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지역 사회에서 취약계층 자살예방 초기 발견 및 상담,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자살에 관해 검색 시 현행 자살예방센터 외에 보건복지콜센터(129)도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하여 필요한 복지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살예방 위기관리 서비스 본격 추진

마음 단단 행복마을 조성
자살 예방 응급키트 보급

충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자살예방 위기관리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주요사업은 마음 단단 행복마을 조성 자살 예방 응급키트 제작 보급 157-0799 24시간 위기상담전화 운영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지원 자살 예방전문가 양성 충북도 자살 실태조사 등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음 단단 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자살률이 높은 시 군 의 2개 마을을 선정해 농약 보관함 보급, 농약 안전사용 교육,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생명사랑지킴이 위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충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열린 자살예방 전문인력 간담회 참석자들이 응급키트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시 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급한 자살위기개입 응급키트에 소방서, 경찰서, 사회복지기관까지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김시경 센터장은 자살예방은 개인, 가정,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함께해야 가능하고, 가장 먼저 자살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번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개최

위원 18명 신규 위촉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심의

충청북도는 2월 20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기 3년의 위원 18명을 신규 위촉하고, 2014년도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심의 심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 이서종 지사는 도내 등록 장애인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2~3천명의 지속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식도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관리자 역할로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장애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유권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하여 새롭게 발족됐다.

위원회에서는 금년 기금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를 갖고 공모기간(1.29~2.13)동안 신청 접수된 36개 단체 36개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11개 단체 1개 사업 총사업비 60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결정된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시기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정된 사업들은 기금 설치목적에의 부합 여부, 공모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지원금액 신청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산적 복지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충북도 아이디어 공모

충북도는 3월 14일까지 20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 등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충북도는 지역 특성과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심사과정을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지역은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충북도 및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dbs.or.kr)에서 신청서와 제안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응모하면 된다.

충북도내 사립 유치원비 소폭 인상

물가상승률 1.3 범위 내
월 40만원 이상은 동결하기로

올해 충북지역 사립 유치원의 원비가 소폭인상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원비를 소폭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의 원비를 동결하거나 지난해 물가상승률(1.3%)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월 40만원 이

하인 도내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전년보다 1.3% 올리고, 월 40만원 이상인 유치원은 동결하도록 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동결했다.

충북지회도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3년 간 유치원 원비가 동결된 만큼 도교육청이 차당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도교육청

의 수용여부에 도내 유치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내 사립유치원은 84개가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수업료 등을 정한다. 다만 각 유치원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19평?

33평?

24평?

우리는 공평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가능한 공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는 충북도내 유일 사회복지 중심으로 설계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으로, '주택체험관', '디자인체험관', '휠체어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주택 체험관

욕실, 거실, 주방 등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디자인 체험관 UD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고령자를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물건과 기구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휠체어 체험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거리' 있는 디자인입니다. 연령과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용과 차이를 존중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디자인이며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용권을 찾아주는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입니다.

충주시 노인일자리 대축제 성황

2천500여명 몰려 취업 신청
제2회 충주시 노인일자리 대축제가 2월 14일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노인 2천500여명이 참여하는 성황 속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올해 추진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알리고 실제 사업에 참여할 노인들의 취업신청을 접수

받았다. 이어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어린이안전지킴이사업단 임공심씨 7명 등 노인 일자리 모범 참여자 10명과 충주시니어클럽 노노케어 어르신지킴이사업단 권순옥씨(76) 등 우수사례 대상자 8명을 시상해 일자리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였다.
또 충주시노인복지관 어르신공연팀의 난타공연과 밸리댄스, 초청가

수 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노인일자리 생산품 전시와 무료검진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지난 2004년부터 밝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해 보다 8억원 늘어난 39억원을 투입해 공익 복지

교육 등 5개 유형 33개 사업에 1천 866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연중 사업과 9개월 사업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니어클럽 등 6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어르신들에 폭넓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보건소, "난임 치료비 지원 해 드려요"

모자보건사업 지원 폭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출산장려 프로그램 다양

제천시보건소는 자연치유도시, 여성친화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난임을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난임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모자보건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모자보건사업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 임(제 외 인공) 시술비 지원, 한 방 난임 치료비

특히 임신 20주 이상의 산모에게 지급하면 월분제는 임신 36주부터 지원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많은 임신부들의 건강관리에 힘을 예점이며 체외수정 시술비는 기존 1회당 18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신선타이시식 3회 180만원씩, 동결태아이식 3회 60만원씩으로 지원 폭을 넓힌다.
또 동결태아이식 미발생시 신선타이 이식 4회까지 혜택을 주며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 50만원 한도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43-641-32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전한 충주만들기 15개 선도사업 시동

시, 14억 들여 안심귀가서비스
콜로 어르신 재난보호 등 추진

지난해 시는 안전 충주 건설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과 특수 전기안전점검 및 개선사업 등 총 11개 선도사업에 9억9천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사회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한 안전시책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완료된 4개 선도 사업은 제외하고 안심귀가 서비스, 콜로어르신 재난보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신규 사업을 대폭 확대해 15개 선도 사업에 14억 1천500만원을 확정했다.
시는 인성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미 확보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올해 안전충주만들기 선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충주만들기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팔 걷은 영동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시행
영동군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증진시켜 해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찾아가는 의로서

비스를 실시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는 11개 읍 면 의료취약지역 30회를 방문해 의로서서비스를 펼친다.
서비스 대상지역은 의료취약지역, 노인정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으

로 내과, 치과, 한방, 정신보건, 임상검사 등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전담 의료팀을 연중 운영하면서 전염병 예방활동과 각종 보건사업 홍보와 보건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근 지역의 마을 주민들도 서비스를 이용 진료지역으로 수송하여 진료를 받게 할 계획이며, 진료 후 검진대상자는 병 의원과 연계해 주고 만성질환자는 동행하여 체

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읍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예도 33회, 72명에게 의로서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다.

취약계층 주거시설 맞춤형 복지 컨설팅

제천 소방서, 봉양을 미당2리
단양군 매포읍 가평2리 찾아

이런 안전복지 컨설팅은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대한 사후관리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방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컨설팅을 실시한 제천시 봉양읍 미당2리와 단양군 매포읍 가평2리 마을은 2012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됐으며 소방공무원과의

음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소방시설 봉사대가 취약가구를 방문해 기초 소방시설, 무료주택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소소상임기체형 활동을 병행해 실시했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재난에 취약한 주거시설에 대해 기초소방 시설 보급 사업, 소방순찰 등 안전 복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서 포돌이워킹하우스 간담회

4대 사회적 근접 예방활동
보은경찰서는 2월 28일 2층 회의실에서 포돌이워킹하우스 간담회를 경찰서장, 장애인연회회장, 어머니방범대장, 군형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4대 사회적 근접을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 대상, 경찰 및 협력단체가 합동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는 맞춤형 자인활동으

로 보은경찰은 이 활동을 포돌이워킹하우스라 칭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포돌이워킹하우스는 어머니방범대, 여형행사, 지역경찰과 1대 3자 대결연을 맺어 입체적, 체계적 방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 모고주 및 군형, 장애인복지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체제도 구축했다.
김진광 경찰서장은 사회적 근접



김진광 보은경찰서장이 장애인연회회, 어머니방범대, 군형 관계자 등과 함께 포돌이워킹 하우스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을 위해 포돌이워킹하우스의 내실화와 고도화를 통해 인연하고 행복 한 보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옥천 노인일자리사업 출범...활동 돌입

사회공헌 시장형 25개 부분
옥천군은 2월 20일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2014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영만 옥천군수를 비롯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과 일자리 참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단박 제공과 사업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노인일자리사업은 25개 부분에서 사회공헌형과 시장형 사업으로 나눠 모두 609명의 노인을

이 참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전체 사업비는 14억 3천만 원이 투입된다.
사회공헌형 참여자는 출동노인의 일반한조리 및 포장, 재가대상자 세탁물 수거 및 세탁서비스, 지역이동선터전계 급식활동, 동굴길 아동교통지도 등에 근무하게 된다.
또, 이들은 관내 생산제조업체, 상가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과 연계해 인력이 파견되는 시장형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회공헌형의 경우, 근무시간은

1일 3시간, 매주 3회일 12회, 한 달 36시간 근무하게 되며, 결근없이 모두 근무했을 경우 20만원 임금이 지급된다.
기업체와 연계해 실시되는 시장형 사업은 인력파견, 제조판매, 공동작업 등 사업형태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부대비 혹은 임금이 20만원 이내로 주어진다.
김영만 군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소득보충과 건강보전, 그리고 자긍심 고취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은장애인회관 보호작업장 조성 '가속도'

그랜드 웨딩을 매체 계약 체결
보은장애인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성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2월 20일 보은장애인회관 이전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성을 위해 15억원을 들여 보은읍 이평리의 건축면적 1천598㎡, 부지면적 990㎡ 4층 규모의 그랜드웨딩을 매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공유재산 및 불동권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2개 김정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가격이다.
현 그랜드웨딩들은 장애인복지관과 인접해 장애인복지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도 용이하다.
특히 군은 10여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를 집행 할 수 있어, 최최의 장소로 판단하여 매입을 결정했다.

군은 이곳 그랜드웨딩들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회관과 보호작업장이 현 그랜드웨딩들로 들어서면, 3천 200여명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이주여성, 5년간 모은 적립금 받는다

보은군 8명에게 증서 교부
보은군으로 시집은 이주여성 8명이 5년 간 알뜰하게 모은 적립금을 받는다.
군은 2월 28일 군수실에서 이들

8명에게 결혼이주여성 적립금 증서를 교부했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칭 적립금 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은 군과 결혼이주여성이

최장 5년간 매월 1만~5만원의 월 1대1 방식으로 매칭 적립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 첫 번째 만기로 107명이 6억 6천 509만원을 받는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만기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달까지 5년 동안 일괄히 모아 총 4천 683만 3천 312원을 적립했다.

중부권 최고의 로펌 청주로! 6명의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선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김잠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 대표변호사 유재풍
- 변호사 김준희
- 변호사 조성훈
- 변호사 박종일
- 변호사 오원근
- 변호사 권종원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7층(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 043-290-4000(대표전화) F.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 공증 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댐 주변지역에 77억 푼다

K-water 충주권관리단, 무료급식·물리치료 등 지원

K-water 충주권관리단장 김영도(왼)는 충주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관할 댐 주변지역에 7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 분들에게

무료급식, 물리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홀나눔센터 운영, 집수리,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금, 원어린 영어교육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재조정해 사업효과가 작다고 판단되는 소모성 사업은 축소 폐지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핵심사업을 선정해 투자를 확대 할 방침이다.



롯데장학금 시상식이 2월 28일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숙 장학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충북대 12명의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역 우수 인재들에게 꿈 심어준다

롯데장학재단, 충북대 학생에 장학금 전달

충북대 학생 12명이 롯데장학재단으로부터 새 학기 등록금을 지원 받는다.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신영자는 2월 28일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에서 충북대학교 김서운(경영학부 4학년·김혜민(경영학부 2학년·서지혜(정치외교 2학년·손희경(환경공학 3학년·신광호(정보통신공학 3학년·유철승(법학부 4학년) 윤미림(건축학 4학년)·이소희(정보통계학

2학년)·이정혜(철학 3학년·전유민(원예과학 4학년)·지수경(경영학부 4학년)·황인희(식품영양학 4학년) 등 12명 학생에게 2014년 1학기 등록금 전액(2천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롯데영플라자 이인숙 청주점장은 롯데장학재단을 대표해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영플라자 6층 카페파스타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충북대에서 추천한 학생들로 기존의 성적을 유지하면 2학기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서운 학생은 롯데장학재단 덕분에 공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고 학업에 더 열중해 졸업 후 롯데 그룹에 입사하고 싶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인숙 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등·하교 함께한 어머니 고맙습니다”

청주혜화학교, 학부모 6명에 디딤돌 명예졸업장 수여

지혜에 특수학교인 청주혜화학교가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뒷바라지 해 온 부모를 위해 2월 14일 명예졸업장을 수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혜화학교는 이날 오동부부터 고교 졸업 후 직업과정인 2년의 전공과정까지 총 14년 간의 학교생활을 졸업하는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으며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자녀

들의 학교생활을 도와 졸업의 디딤돌 역할을 한 학부모 6명에게도 현직인 자식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디딤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날 명예졸업장을 받은 박옥석(여 53세)은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으며 학교 다닐 때 반이었던 졸업장을 명예졸업장이라는 이름으로

오랜만에 다시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비장애 학생들과 달리 하나부터 열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원만한 학교생활이 어려운 중증의 장애학생들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도 학업의 열정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청주 신남유치원 졸업식에서 한 어린이가 졸업 수예증을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졸업식'

청주 신남유치원

청주 신남유치원(원장 남호예)이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졸업식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2월 14일 유치원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5회 졸업식에는 졸업생 82명뿐 아니라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이날 졸업식은 축하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

행했다. 특히 졸업생들에게 바램상과 협동상, 예술가상, 고운말상, 탐구상 등 소품과 나눔, 인성교육 중심의 다양한 상이 전달돼 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남 원장은 유아가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만족하는 졸업식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 원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수혜자 자립 돕기 '발 벗어'

자활기업 성실 기업 참여 자녀에 장학금·집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자살위험계층 등 복지수혜자들이 모여 만든 자활기업이 이들의 자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충주지역에는 현재 자활기업이 7곳 있으며, 그 중 가장 먼저 자활기업으로 독립한 곳이 집수리 전문업체인 1주성실기업이다.

충주자활후생기관은 지난 2000년 1주성실기업 이종성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수급자를 주축으로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 충주시 저소득 주민들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사업단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출범 이듬해인 2001년 매출액 1천500만원에서 2004년 기업독립 전 5천만원까지 늘었으며 같은 해 3월 25일 자활기업으로 독립했다.

자활기업으로 독립한 후 10여년

지난 현재 주식회사로 성장해 충주시와 수자원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사업 등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3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자활기업으로 독립하면서 그 동안 2명의 기초수급자가 자립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게 됐으며 현재 직원 6명 중 1명의 기초수급자가 직원으로 채용돼 기업을 배우고 있다.

이종성 대표와 직원들은 그 동안 겪은 어려움과 도움을 잊지 않고 매년 충주지역자활센터를 찾아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종성 대표는 앞으로 더욱 현실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충주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 저소득 가구 자녀에 장학금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새 학기를 맞은 충북지역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 비용 부담을 지원한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2월 18일 해피스파티 장학금 1천500만원과 임직원들이 모은 23만원의 장학금을

아동복지전문기관인 효목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모두 1천735만원으로, 충북지역 저소득 가구 자녀들의 교육, 학용품 등 신학기 용품 구입비로 사용된다.

충북지역자활센터 협회장에 성낙현씨

선거결과 득표를 81.5% 협회 위상 높일 것

[사충북지역자활센터협회 8대 회장에 성낙현 보은지역자활센터장(사천)이 선출됐다. 신임 성 협회장은 2월 14일 열린 2014년 13차 정기총회에서 선거에 참석한 54명 가운데 44명(81.5%)의 높은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신임 성 협회장은 한남대를 졸업한 후 정보회 신화대학원과 순실대 사회사업학과 대학원 사회 복지학과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보은군장애인연합회 부회



장, 파랑새지역아동센터장,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목회자정의 평화실천협의회, 보은 교향교회 담임목사, 보은지역자활센터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성 협회장은 협회의 네트워크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임기동안 협회를 이끌어 가면 협회의 위상을 높여겠다 고 강조했다.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취임

이혜정(사천) 청주YWCA 신임 사무총장이 3월 4일 청주 YWCA에서 열린 취임 예배를 통해 취임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1993년 1월 청주 YWCA에 입사해 청주 YWCA 국장,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장, 사회복지 대표, 청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역임했다.



현재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감사, 청주시노사정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요구하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필 것 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구성원 및 배우자들이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YMCA 무료급식소에서 무의탁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 따뜻함 드리겠다”

SK하이닉스 사랑의 점심나눔 행사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2월 21일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YMCA 무료급식소에서 지역 무의탁 노인 20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점심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청주사업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진행됐다.

이날 구성원 배우자 봉사단체인 행복나눔단 15명과 구성원 20여명은 무의탁 노인들에게 육개장, 갈국밥, 과일 등을 제공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승욱 씨(46)는 출고 곳은 날씨에도 밥 한 끼 드시려고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앞으로라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드리도록 봉사단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구성원들의 기부와 급여 끝돈을 모아 지난 1999년부터 매일 독거노인 쌀 지원, 사랑의 교복지원, 행복나눔 청소년 장학사업, 야간학교 지원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1004지역사회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단체(동아리)가 가진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관, 시설 및 재가 대상자 등에게 맞춤형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문봉사단이다.

☆구성 및 활동

- 의료, 문화, 교육, 상담, 벽화, 노력봉사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연 4회 이상 활동

☆지원

- 맞춤형 봉사활동 제고
- 봉사활동 소요 물품 구입비
- 문화·예술 공연 무료 관람 지원(복지넷)

☆ 위촉신청

- 온 라 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cwin.or.kr) → 자원봉사 → 자원봉사활동 → 참여신청
- 오프라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방문 및 전화 신청

☆ 관련문의

- 전화문의 : 043)234-0840-2
- E-mail : chungbukcody@gmail.com
- 담당자 : 한아름 코디네이터

음성노인복지관 '하늘소풍' 강좌 개설

총 12회 과정... 상·하반기 매주 금요일 운영

음성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으로 노인복지관에 개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음성군노인복지관(관장 유지숙)은 총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죽음준비 교육 프로그램인 일상에 단 한번 뿐인 하늘소풍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기로 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하늘소풍 프로그램은 죽음준비교육

을 통해 현대의 삶에 대한 꿈과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총 12회 과정으로 꾸며져 상반기 과정은 3월 7일부터 5월 23일, 하반기에는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에 진행되며 지역에 거주하

는 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마음열기(오리엔테이션) 자서전 의의 및 쓰기 유언장 쓰기 버킷리스트 작성 나의 장례식 계획세우기 장례문화센터 견학 소중 한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쓰기 신 케스트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행복기자단 '출동'

군내 3개 초·중·고등학교 대상 취재활동 등 주 1회 28회기 기획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병세)은 발달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1대 1로 함께하는 행복기자단

행복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복기자단은 발달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에게 올바른 친구관계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학교생활 구축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심어주기 위해 운영된다.

행복활동 기자단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움직이는 세상 공모사업으로 4월-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음성군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월-3월까지 3개 학교를 모집해 총 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활동은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찾

아가는 친구들끼리, 행복신문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와 취재활동, 문화체험활동 등 학교당 주 1회씩 28회기로 기획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행복신문을 통해 지역의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1:1 친구가 함께하는 행복기자단 행복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 ☎043-883-2900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애 체험 통해 생각 바뀌었어요"

괴산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휠체어와 휠체어를 체험하며 시각장애와 지체장애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르게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별 에티켓, 장애체험활동, 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서로 다른 차이임을 인정하고 모자란 부분은 서로 채워줄 수 있음을 알게 해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 상호간에 진정한 동행임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 정효선 관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학생들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 문제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투눈을 가리고 계단을 오르는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여로사항을 체험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지

역연계팀 ☎043-832-08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군노인장애인복지관, 가사도우미 전개

8개 읍 면 저소득층 출산 여성 장애인 대상 3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돌봄 서비스

단양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이덕중)은 3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육아 가사도우미사업을 펼친

다.

복지관의 사업을 살펴보면 올해 처음으로 단양지역 8개 읍 면의 저소득층 출산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

로 산모지원과 육아지원에 나선다.

또한 고흥의 독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사업도 펼친다.

저소득층 출산 여성장애인의 산모 육아만 5세 미만 자녀지원은 하루 4시간씩 주5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중증, 고흥의 독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사업은 하루 3시간씩 주3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장애인은 관할 읍면 사무소, 보건소, 기타 장애인협회에 대상자로 추천받아 상담 후 결정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여성장애인들의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 고흥의 독거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가사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복지서비스를 마련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사회관리팀 ☎043-420-6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와 함께 무료 영화 보러 오세요"

충주사회복지관 가족 극장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대상

충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성진)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 복지관 3층 다목적실에서 희망마을 가

족극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희망마을 가족극장은 총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2월 28일에는 빙글빙글이 상영되었으며, 오는 5월-10월에는 복지관 앞 상상마당을 활용한 야외 영화상영 및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진 관장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밝은 동네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며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민간기관과 연계할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저소득아동 인터넷 중독 치료

충청종합사회복지관, 자연으로 log-in 프로그램 실시

충청종합사회복지관(관장 양현)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충청군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단법인 바보와나눔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우선적 배려를 목차

으로 외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종합사회복지관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심 아동 20명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습관을 기르고 사회성을 강화해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1년 동안 1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자연으로 log-in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 사후 검사, 유기농 요리교실, 자연생태 숲체험, 자기조깅훈련, 휴(休)요일 등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 인터넷 중독을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양현관 충청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앞으로도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올 해도 '사랑타래 이동복지관' 사업

현대자동차 함께 움직이는 세상 공모 우수기관 선정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재원)이 2013년 읍면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사랑타래 이동복지관 사업이 현대자동차 함께 움직이는 세상 공모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올해도 연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제천시와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및 지리적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

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직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인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기획부 ☎043-662-0900-3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늘벗꽃문화교실 개강

12월 까지 어학강교실 등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유재웅)은 3월 30일 어르신을 위한 늘벗꽃문화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2014년도 늘벗꽃문화교실은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어학교실, 건강교실, 예능교실 등으로 나눠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유재웅 청주내덕노인복지관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 드림스타트 가정에 영화관람 서비스 제공

청주시 아동복지관이 2월 28일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 등 총 300명에게 영화 관람 서비스를 제공했다.

드림스타트 가정의 화합 도모와 아동들의 폭넓은 가치관 형성을 위

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드림스타트 정서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시행된 영화관람 서비스는 아동과 부모 총 600여명이 참여했다.

보은군인장애인복지관-한화 복지서비스 협약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김필중)이 유한화와 협약을 맺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공동한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보은지역 내 경제적 부담, 정보 부족, 신체적 불편, 교통의 불편 등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건강한 마을 만

들기 프로젝트이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보은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1회 의료지원, 영양지원, 정서지원이 진행되며, 의료지원으로는 종합검진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한다.

Justice 1st

법률복지의 새장을 여는

법률홍닥터 사업 안내

법률홍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인이 총부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률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는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관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을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은

노적인 법무관(법무부 인권구조과)이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homedoctor_roh@hanmail.net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청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홍닥터실

법무부 · 충청북도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진단

영유아 복지서비스

실질적 정부정책으로 해결해야

떠돌이 센터를 찾은 영수는 5살이다.

어린아이 친구들에게 떠돌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자주 혼나는 형과 아이를 예뻐해 주지 않는 어린아이 교사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고 영수 어머니는 말했다.

36개월 부터 어린이집에 다닌 4세 수린이는 점점 반항적으로 변해 간다는 이유로, 3세 민우는 유년증과 신진항이라는 이유로 센터를 찾아 왔다.

위의 사례는 매우 단편적이다. 영유아 기관에 근무하다 보면 매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과 만난다.

영유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며 영유아 복지서비스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전담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무상보육,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의 현금지원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부모들, 특히 저소득가정 부모들의 우울감이 자살감, 부족, 양육방편, 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저 반복적인 정적일 뿐이다.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정서적인 지원은 물론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저 현금만 쏟아 붓는 정책이 아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지원 정책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에 발표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가정 내(80%)에서, 특히 부모(83.8%)에 의해 발생하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가정 내에서 양육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법정보호제도가 아닌 장애, 다문화, 한부모, 조손, 우울가정, 폭력가정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영유아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라 문제가 시작될 시점에는 발견이 매우 어려우며 문제가 민성화된 후반기 이후에나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 아동은 다양한

위험 상황에 노출된 상태로 영유아기를 보내게 된다. 앞서 말했듯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노인복지권, 장애인복지권, 여성회권, 청소년회권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전문 서비스제공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정작 영유아를 위한 복지기관은 민간에서 시작된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영유아에 대한 관심은 무상보육을 위한 시설이나 교사지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 등 외부적인 요소에 치우쳐 있다. 발달지연, 양육환경파괴, 방임, 폭력 등의 문제, 심리 정서적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소홀하다.

0-13세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사업인 드림스타트 역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전체의 1% 내외로 아동복지의 인권관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취약계층 영유아를 집중 발굴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이 지원하지 못하는 법정보호제도를 이의 영유아가 방지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늘 법적근거와 예산부족, 드림스타트사업과의 서비스 중복분쟁에 부딪힌다. 영유아복지는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가정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 인적자원인 영유아들과 그 가족들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인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 아이들이 웃어야 우리의 미래가 진정 행복해질 것이다.

유 옥 현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주사/센터장)

위험 상황에 노출된 상태로 영유아기를 보내게 된다. 앞서 말했듯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노인복지권, 장애인복지권, 여성회권, 청소년회권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전문 서비스제공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정작 영유아를 위한 복지기관은 민간에서 시작된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복지 사각지대 농촌 어르신 위한 대책 절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비.시·군)사회복지협의회(비.시·군) 2014년 충북사회복지정책을 논하다

김창기 회장 : 오늘 바쁘신 가운데 회담회에 참석해주신 충북도 전원권 복지정책과장님과 사회복지협의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담회는 2014년 충북도 복지정책에 대한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복지현안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전원권 과장 : 2014년도 충북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이 행복한 심김 복지 실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민만족 심세한 맞춤형 건강 실현, 음식문화 향상 및 불평등의 약화 추진 등 4대 전략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담당하고 활기찬 노후 활동 지원 등 모두 38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기 회장 : 2014년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의 업무계획은 장아기는 평생복지를 실현하려는 것 목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도의 업무 계획과 직능단체, 시·군·사회복지협의회 현안에 대해 단재정남과 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길 바란다.

권현수 회장 : 내년부터 노인 장애인 예산은 증원으로 환원되는데, 아동만 그대로다.

각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서울 아동 다르고, 충북 아동 다르고, 전남 아동 다르듯이 지자체 예산에 따라 아동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내년엔 노인, 장애인이 증원으로 환원되면 우리 아동도 증원으로 환원시켜달라는 운동을 하려고 한다.

또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해서 사회인이 되는 것이 주목적인데, 아이들의 자립준비금에 관한 비용이 전혀 없다.

학업이 우수해 대학 가서 공부할 연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나갈 때 2년 1기 자격증을 하나라도 취득했다면 하는 마음에 노력을 하는데, 학원비가 보통 한 개 당 20~30만원으로 비싸고 아이들도 많아 시설 입장에선 힘들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에 충청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2014년 복지정책 회담회를 개최하는 모습.

- 참석자: 김창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권현수 충북노동복지협의회 회장, 오세경 충북노인복지협의회 회장, 최성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현주 충북노인종합복지관 회장, 유준원 충북사회복지사협의회 회장, 이경은 충북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철희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박민희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사희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변장섭 청원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병준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장, 장우석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손관영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강희문 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최병철 영성원 원장, 이희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 김경애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윤모 청주하는복지연합 운영위원장, 권원건 충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장기봉 충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광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이상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오세경 회장 : 충북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 어르신 비중이 많다. 현재 농촌 어르신들한테는 요양시설에 들어오시는 어르신들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농촌지역에 다니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행복자립이, 행복나눔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농촌의 어르신들은 지금 지킴이 무엇이고, 내가 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또한 겨울철에 아파도 병원에 가질 못한다. 누가 데려갈 사람도 없고 치료 농촌까지는 운행이 어려워 시내서비스가 아파서 갔다 저녁에 들어오는데 의료병원에 가고 싶어도 쉽게 못가서 처리가 된다.

두 번째는 차에 어르신이기 어렵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금 농촌의 어르신들의 권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가족들도 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차에 대한 홍보도 특히 부족하다.

교육, 권리, 인식부족, 약을 처방한다고 해도 약을 어디 가서 받는지, 어떤 순서로 먹는지 보편적으로

모르지 못한다. 그래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경로당 현장 프로그램도 도시에만 집중돼 있고 농촌에는 전혀 안 돼 있다. 농촌 어르신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김창기 회장 : 홍보부족을 이야기 하셨는데, 시·군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세우려면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설문조사를 조금 확대적으로 생각하면 가가호호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노인복지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 주면 좋겠다.

최성진 과장 : 복지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우리 복지국은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민과 관이 가버너스 차원에서 도와 함께한다면 사각지대가 좀 더 빨리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현주 과장 : 충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가입한 복지권수는 16곳이다. 노인복지권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노인복지권이 처음 생겼을 때는 교육에 충실했는데, 지금은 노인일자리라는 기본사업이

고 여가복지시설이 비치되어 있는 복지권이 남포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직원들의 인력확보가 부족하다. 각 사회복지협회 등 복지사업의 선진기능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관에서 어렵다.

몇 년 전에는 부족한 인원을 공적으로 배치했는데 복지시설에 공익구성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공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준원 회장 : 보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해 교육을 안 하게 되면 벌금형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는데 기관에서 보수교육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 현장에는 약 2천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는데 기관에서 보수교육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교육에 참가하기 힘들다.

보수교육에 대한 예산이 만들어졌다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15년에서 38년 사이에 하게 되는

데, 실태조사서도 5월에서 8월달 사이에 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태조사 내용에 사회복지계획 전달체계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도 사회복지사다. 과연 실태조사를 하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다 대상자 중심이다. 복지전달체계라는 부분이 약하다.

세 번째는 소진중후군이 일어나 감정노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한다. 단순히 대우수당 만 원주는 걸로는 안 된다. 조직원들이 소진중후군에 걸려 그만둔다면 그 조직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근속수당 등 예산을 만들어 인정을 해주면 어떤가.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관의 이직을 줄이는 방법 등 작은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 방법에 대해 연구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영서 상임이사 : 4년 동안 도시사 평가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내용들은 4년 동안 연장이 됐던 내용이다. 재단에서도 단위에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도를 계 있으면 좋겠다.

이철희 사무처장 : 읍면동 조례에서 우리 시군구협의회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위임한다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창기 회장 : 조례제정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4월 달에 통과될 예정이다. 중앙회상단 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2월 달에 통과하려고 노력했는데 4월로 미뤄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드린다.

박민희 회장 : 회담회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도 나오지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움직여 가서 사회복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인들이 나왔으면 한다.

김창기 회장 : 도 협의회 차원에서 시군협의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점이 마비됐던 것 같다. 2014년에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군협의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2014년도 주요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넘치는 세상을 원하시나요? 베이비부머봉사단에 참여합시다! 베이비부머봉사단 소개, 베이비부머봉사단이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 및 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50대 연령층 대상 봉사단입니다. 신청대상: 55-63년생(±52-66년생 포함) 개인 및 5인 이상 구성된 각종 단체나 모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봉사활동: 연중(월 2회 이상 권장). 혜택: 1. 계가봉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지원, 2.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3. 우수 봉사단체의 경우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4. 우수 봉사단체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 무료 관람 기회 제공, 5.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등. 베이비부머봉사단 참여 신청 안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한아름 코디네이터 ☎ 043)234-0840~2

6.4 지방선거와 평화를 위한 복지



김은모
우스투게더 상임이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4년 한 번 있다. 모래알과 같은 작은 권한을 가진

유권자들은 딱 한 번 힘을 쓸 수 있는 때이다. 선출된 권력은 작은 모래알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모래 덩어리 큰 건물을 이루거나 일사반란하게 움직일 때에 힘을 갖게 되는데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전에 모래알들이 덩어리 존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 덩어리야하는가? 평화를 위해서다.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높여 놓았지만 양극화라는 길은 그림자를 동시에 만들었다. 경쟁시스템은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 평화가 멀어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한 힘으로 통제하는 사

태가 되어가고 있다. 힘으로 통제된 평화는 가짜 평화이다.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폭력은 제한된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평화는 정의로운 자원의 배분에 서 만들어 진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6.4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비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오늘 아침 신문에 마지막 집세를 남기고 비극적인 자살을 한 세모녀의 기사를 보면서 이

들에게 가난이 얼마나 큰 폭력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들의 평화를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의 평화도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난 사회복지사 공무원 연세 자살의 소식으로 우리 사회복지계의 안전망도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제 더 이상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한 복지시대를 열어 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복지느냐이다.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은 모래알이다. 좋은 모래는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멘트이다. 무엇이 시멘트인가? 나는 평화를 이루려는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더

는 집세가 없어서 동반 자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안에 있는 평화를 이루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큰 연대의 물결을 만들고 함께 지혜를 모아 좋은 정책과 좋은 사람이 채택되고 당선 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모래가 모여서 아름다운 집이 되고, 파란 파도들이 안식처가 되고, 모래가 모여서 세상의 중요한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가 모래이면서 시멘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6.4지방선거가 우리 지역의 평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 스스로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 해야겠다.

노인행복사업 국비지원 바란다



김영일
충북사회복지전문연맹위원장

가수 박재민이 부른 '남이만 노래는 장삼이'는 김옥 아란 부제가 달려 있고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람이건만 으로 시작한다. 절절한 남의 사랑을 장삼이 김옥이라고 비유한 것이 범상치 않다. 이 김옥이 달히거나 딱히면 삶은 끝이 난다. 풍전등화(風前燈花)와 같은 김옥이 불이 있음을 알면서도 남을 위한 삶을 구상한다는 것은 숭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정한 이름도 각각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자신들을 돕겠다고 말하는 사업의 이름인 9988 행복나눔미, 9988 행복도우미, 9988 행복키미, 9988 행복지킴이, 9988 행복나눔 도우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9988 이런 용어의 사용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편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9988244구구팔팔이삼사 즉, 99살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49살이면 이러한 우스갯소리에서 9988을 자용한 것이 첫 번째이고 100세를 넘기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인 자가 두 번째이다. 가정 노인행복사업 처음 용어를 큰 틀에서 하나로 묶고 세부적으로 도우미, 지킴이 같이 나누었으면 한다. 국어의 포어법에 맞게 지킴이, 도우미, 나무미가 아닌 지킴이, 도우미, 나무미로 하면 어울릴 것이다. 지난 2월 26일 충청민속체험박물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의 현장토론회에 참여한 지역인사들이 충북도의 노인권역 핵심사업인 9988 행복나눔미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한 위원장은 소통과 공감으로 갈등의 싹타래를 풀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김경중)는 9988 행복나눔미 사업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와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398명 중 97.5%인 383명이 만족하고 답을 해 사업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0.4%는 병원이용이 좋았다고 했으며, 대다수 노인들은 이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9988 행복나눔미 사업 과을해부터 충북도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재가노인 돌봄사업인 9988 행복키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노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으면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았고 죽음을 앞둔 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보듬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인사들이 국민통합위원회에 건의한 것처럼 이들 사업의 전국 확산을 구분하기 어렵고 지자체에서

체·심·숙·기

누구에게나 자신이 만든 꿈과 목표가 있으며, 그것 이루기 위하여 도전한다. 실패, 고난과 역경, 지진이 내 꿈과 목표 앞에 큰 벽으로 가로 막을지라도, 하나 하나 점검하고 전속력으로 달린다 보면 분명 꿈과 목표 앞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어릴 적 뚜렷한 꿈과 목표가 있었다. 결혼을 하고 나고 고향 부산을 떠나, 제천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내 꿈과 열정은 어느 새 저만치 멀리 나 있었다. 그런 무의미한 내 삶에 반짝 반짝 빛나는 열정을 심어준 꿈장이라는 동아리. 꿈장은 낡고 어두운 벽에 벽화를 통해 아이들과 지친 사람들에게 빛

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벽화 동아리이다. 신백아동복지관 서진 권장님의 권유로 꿈장을 창설하고 단장님과 나를 포함 1기 멤버 6명으로 시작해서, 5년이 지난 지금은 단원들도 많이 늘었으며, 그 열정 또한 식을 줄 모른다. 붓을 잡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빛이 나고, 우리들의 벽화를 보며 행복하게 웃어주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볼 때면 시간의 흐름을 막고 싶을 만큼 마음이 부들부들하다. 그리고 벽화가 힘든 겨울이면 꿈장만의 독특한 인형극으로 아이들을 맞이한다. 멤버들과 함께 책을 선정, 각색하고 한 팔 한 팔 정성스레 만든 인형과 소품들로 매년 아이들을 울고 웃

반짝 반짝 빛나는 열정을 안고

게 한다. 인형극을 준비하는 동안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두 달의 준비 시간을 함께 하는 우리 꿈장 식구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항상 인형극의 막이 오를 때면, 아이들의 호호호호한 눈망울이 너무 맑고 깨끗해, 나 또한 행복한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막이 내릴 때면 무사히 끝났다는 인도감과 벅찬 감동이 들릴듯이 밀려온다. 또한 더욱 발전하여 2012년부터 '꿈장은 엄마공감'으로 새 옷을 입고 우리 지역의 돌봄교실이나, 한부모, 조손가정, 소외계층 아이들을 가정을 방문해 아이와의 소통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함께 벽화작업을 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이제 몇 년이 지났지만 송골송골 맺힌 밤방울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물 건 개구리처럼 우물만이 나만의 인식차이만,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면 내 인연함이 부끄럽기 그지 없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보내는 이 시간들과 추억들이 어릴 적 보았던 추억 필름처럼 내 가슴에 걸림이 되어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이렇게 보내는 이 순간들이 모여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 평생이 되듯이 살아가는 그 어린 기회도, 때때부 풀려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더 이 금쪽같은 시간

들을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부대끼며 영혼한 아침의 시작처럼 항상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아직은 눈먼 새의 날갯짓처럼 위태롭고 서글지만 언젠가는 그 열정으로 저 창공을 훨훨 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길게 뻗은 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사랑과 열정을 함께 나누는 우리 꿈장 식구들과 신백아동복지관 권장님,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자신을 새롭게 충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자원봉사동아리 꿈장이, 전 송이의 장미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더 진한 향기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제나 열정을 대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김성숙 자원봉사자>

체·심·숙·기

사람들은 봉사를 무엇이라고 정의할까? 나는 성심농아재활원에서의 문장 지도 봉사를 '넋지'라고 정의하고 싶다. 2012년 5월에 처음 시작한 봉사는 아직도 내게 기다려지고 싶지는 봉사이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그 아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울려지는 봉사이기 때문이다. 문장 지도 자원봉사는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어휘력과 문장력 향상을 위한 공부이다. 처음에는 봉사 자체에 대한 책임감만 앞서서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 그러다 보니 재활원에서 문장 지도

도 자원봉사를 하고 난 뒤에도 늘 무언가 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엔 봉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장애인 친구들에게 다가갈까 하는 걸까?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때, 나부터 마음을 열고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수화도 배우며 서로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자를 다니며 꼭으로만 듣고 배우면 모든 것들이 성심농아재활원 청각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고, 관심 밖의 세상이었던 장애인 친구들의 고충과 아픔

을 깨닫고, 함께 느끼며,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내가 모르던 그 세상과의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한쪽이 아닌 서로의 노력들이 쌓이면서 아이들과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만남의 횡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웃음의 횡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커졌다. 비로소 나는 이 봉사의 목적이 가르침, 배움이 전부라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서로에 대해 진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할 때, 나와 아이들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더 나아가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꿈을 간직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참 행복해지는 것 같다. 청각장애인에게 문장을 만드는 것은 비장애인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세상과의 소리 없는 단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낯설고 어렵다는 것이다. 성심농아재활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얻었고, 에너지와 번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길 다짐해 본다. <글/이재영 자원봉사자>

우리의 애너지

를 알게 되고 작은 것에 공감하며 베풀어 주는 주안 못 보아도 공감해 주는 단과 친구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공부하며 나 아닌 모습엔 더욱더 아낌없이 칭찬과 용기를 주고 내 자신도 아이들에게 더욱 깊이 다가가기 위해 수화도 배우며 서로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자를 다니며 꼭으로만 듣고 배우면 모든 것들이 성심농아재활원 청각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고, 관심 밖의 세상이었던 장애인 친구들의 고충과 아픔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성폭력특별수사대: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담반)
 아동·장애인, 중요 학교폭력, 중요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충청지방경찰청내에 마련된 성폭력 전문수사팀 피해자 조사 및 의료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반(충북원스톱지원센터)과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담당하는 단속반으로 구성·운영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지원내용

- 여자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24시간 근무하며 피해사례 접수 시 상담 및 영장전술교육(심리전문가 참여)을 통한 피해자 조사
- 청주의료원과 연계하여 피해자 응급조치 및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피해자 의료지원 (성폭력 응급 키트) 실시
- 기타 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법률지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은밀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합니다.

이젠 아동·장애인 전문수사팀인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알려주세요!

신고 전화: 주간: 043)240-2647(성폭력 특별수사대) 야간: 043)272-7117(원스톱지원센터)
 학교폭력: 117 H·P: 010-4778-3155

지역단신

아동자립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아동복지협회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현숙)는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실무자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2월 18일-19일 1박2일 동안 충주 컨벤션리조트에서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종합성격검사 LCSI 특강과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별 분임토의를 실시하고, 시설 간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례 공유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자립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아동의 자립지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이 사업은 복소(예정)아동 자립지원 사업으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자립을 앞두고 있는 복소(예정) 아동들에게 개인별 욕구에 맞는 전문자격을 취득지원과 직업탐색 및 실질적 자립지원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 등 아픈 노인들 학대 가능성 높다 수발자 부양부담 스트레스 원인

치매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이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8일 충북노년보호전문기관과 충북도복부노년보전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모두 490건으로 이 중 의심사례는 14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1.5%에 해당하는 72명의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치 못하거나 매우 건강치 못하다고 밝혔으며 실제 치매진단 또는 치매의 등(의심) 노인도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치매나 건강악화 등을 겪는 노인들 돌보는 수발자의 부양부담 및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역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90건(42.7%), 신체적 학대가 66건(31.3%), 자기방임을 포함한 방임학대가 44건(13%)으로 나타나 여전히 신체 정서 방임 학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노인의 연령별 현황으로는 2012년 20.9%를 차지한 60대가 7.7% 오른 28.6%로 나타나 비교적 저연령층의 노인도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충북도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1만5천245명(13.7%)에서 지난해 22만2천188명(1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신고인지 경로는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45.7%로 가장 높아 충북지역 노인인권 및 학대에 대한 홍보 등 각종 사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성안길 거리캠페인 실시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는 2월 24일 충주 성안길 일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위기여성의 인권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번 거리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폭력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주민의 왕래가 잦은 충주사지 횡단간 일 공장을 중심으로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주변 상가 및 행인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1366의 역할 및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에 대해 알렸다.

유영경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소장(1366 충북센터장)은 앞으로도 도내 시 군을 순회하며 여성폭력예방과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제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개강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취업, 사례관리 서비스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기숙)가 3월 3일 결혼이주여성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개강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김기숙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인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어울림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다문화가족 개개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제천시 거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교육을 기본으로 가족통합, 취업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자녀언어발달 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남부지역 거주자를 위한 한국어 집합교육을 비롯해 취업교육,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노인요양원, 어르신요양 우측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

충청노인전문요양원(원장 이홍식)이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충청노인전문요양원은 최근 열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노인복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홍식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이 요양원은 2012년 전국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지난해에는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충청노인전문요양원은 원예교실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등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의 법률상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노재인 법무관

40세의 여성 A씨는 10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로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갈취에 시달렸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A씨를 폭행하기 일쑤였고 매일씩 집을 나가서는 외박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와 돈을 요구하곤 했다. A씨는 5살 된 딸만 바라보며 이러한 남편의 학대를 수년간 견뎠으나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데리고 남편 몰래 집을 나가 이사를 갔다.

일자리를 구해 적은 돈이지만 착실히 돈을 벌며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면 A씨는 어느 날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기겁할 상황을 맞닥뜨렸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찾아와서는 A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후에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배우자로서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찾았음을 알게 되었다.

A씨의 경우처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를 지

정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등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라고 한다. 주민등록법상 피해자가 세대주인 경우, 피해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를 막는 것이다. 위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분증과 피해자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위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입증서류에는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②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③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④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등 초본 또는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등 초본이 있으며, ⑤ 서류는 입소한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⑥ 서류는 가해자를 고소 고발한 후 이를 처리하는 담당 경찰청으로부터, ⑦ 서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 모집

청주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실 자원봉사
관리센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요청인원: 5명
활동기간: 3. 14 - 12. 31
전화번호: 043-216-4004

서류정리 및 행정보조
관리센터: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요청인원: 2명
활동기간: 3. 14 - 12. 31
전화번호: 043-257-0088

이동센터 내 시설봉사
관리센터: 호북나눔지역아동센터
요청인원: 0명
활동기간: 3. 14 - 3. 28
전화번호: 043-213-0095

초등부 학습지도
관리센터: 대성지역아동센터
요청인원: 2명
활동기간: 3. 14 - 3. 24
전화번호: 043-213-0116

오리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외국인사랑나눔지원센터
요청인원: 3명
활동기간: 3. 11 - 12. 31
전화번호: 043-8782-3699

제천시

사무업무 보조
관리센터: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요청인원: 4명
활동기간: 3. 14 - 3. 28
전화번호: 043-652-3130

제천시

제능기부 및 교육봉사
관리센터: 덕산지역아동센터
요청인원: 10명
활동기간: 3. 14 - 10. 29
전화번호: 070-8100-4727

청원군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청원군노인복지관
요청인원: 3명
활동기간: 3. 12 - 3. 31
전화번호: 043-288-3060

도서관(자료실) 지원
관리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요청인원: 2명
활동기간: 3. 12 - 3. 31
전화번호: 043-710-9140

옥천군

자원봉사자
관리센터: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요청인원: 0명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733-2500

1004지역사회봉사단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0명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

복 / 지 / 만 / 평

선정(選定)

이창신 www.bokmari.com



가난도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



서민층 LPG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시행

LPG호스는 노후되거나 파손으로 사고우려가 있어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 사업대상 | LPG가스 호스설치 주택(서민층)
- | 사업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무료 설치
- | 문의처 |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 모든 LPG가스 사용주택은 2015. 12.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시행시 액화석유기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